

# 口訣資料의 ‘-ㄱ-’ 弱化·脫落을 찾아서

李 丞 宰

1. 머리말
2. ‘-ㄱ-’과 ‘-ㅇ-’의 同意性
3. ‘-ㄱ-’>‘-ㅇ-’의 ‘-ㄱ-’ 弱化·脫落 假說
4. 後代 資料를 통한 檢證
5. 마무리

## 1. 머리말

이 글은 訓民正音 以前の 口訣資料에서 발견되는 ‘-ㄱ-’의 弱化·脫落 現象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釋讀口訣의 ‘-ㄱㅏㅓ’과 ‘-ㅓㅏㅓ’ 그리고 ‘-ㄱㅓㅓ’과 ‘-ㅓㅓㅓ’은 그 讀法과 機能이 밝혀지지 않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文法 機能과 意味 機能이 서로 일치함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同意性을 감안하면 兩者의 차이는 音韻論的 차이에 불과하다. 이 글은 이에 착안하여 音韻論的 解釋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ㄱㅏㅓ’과 ‘-ㅓㅏㅓ’의 ‘-ㅏ-’를 ‘-ㅓ-’으로 읽으면 그 차이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ㄱㅏㅓ[고근]’과 ‘-ㅓㅏㅓ[아근]’의 ‘-ㅓ-’이 弱化되면 ‘-ㅇ-’이 되는데, 이 弱化形이 바로 ‘-ㄱㅓㅓ[고흔]’과 ‘-ㅓㅓㅓ[아흔]’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假說을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황선엽(2002)가 발표되었다. 誦讀口訣의<sup>2)</sup> ‘-ㄱㅓㅓ’과 ‘-ㅓㅓㅓ’를 각각 ‘-고근’과 ‘-아근’으로 읽을 수 있고 이

1)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한 ‘-ㄱ- > -ㅇ- > -ㅇ-’의 약화·탈락 현상에 대해서는李丞宰(1994, 1996)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口訣어나 口訣吐의 讀音을 [ ]에 넣어 제시한다.

2) ‘誦讀口訣’은 필자 특유의 용어이다. 이에 대해서는李丞宰(1997:142)을 참고하기

들의 機能은 釋讀口訣의 ‘-로ㅅㅑ[고곤]/-로ㅅㅑ[고훈]’과 ‘-ㅅㅑㅑ[아곤]/-ㅅㅑㅑ[아훈]’과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卓見이다. 마침 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작업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同意 反復을 피하기 위하여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함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용기를 얻었다. 황선엽(2002)를 통하여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音韻論的 觀點에서는 아직도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느낀 것이다.

音韻論的 解釋은 대개 대상이 되는 形態의 同意性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釋讀口訣의 ‘-로ㅅㅑ[고곤]’과 ‘-로ㅅㅑ[고훈]’이 同意이고 나아가서 ‘-ㅅㅑㅑ[아곤]’과 ‘-ㅅㅑㅑ[아훈]’이 同意임을 먼저 밝힐 것이다.<sup>3)</sup> 그런 다음 ‘-로ㅅㅑ[고곤]’과 ‘-ㅅㅑㅑ[아곤]’의 ‘-ㅑ-’이 ‘-ㅎ-’으로 弱化되어 각각 ‘-로ㅅㅑ[고훈]’과 ‘-ㅅㅑㅑ[아훈]’이 생성되었음을 논의할 것이다. 이 ‘-ㅎ-’이 脫落하면 이들은 다시 ‘-로ㅑ[곤]’과 ‘-ㅅㅑ[안]’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설정되는 ‘-ㅑ- > -ㅎ- > -ㅇ-’의 弱化·脫落 가설을 誦讀口訣 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弱化·脫落을 중심으로 송독구결 자료의 先後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 2. ‘-ㅅㅑㅑ’과 ‘-ㅅㅑㅑ’의 同意性

먼저 ‘-로ㅅㅑ[고곤]’의 용례를 제시한 다음 그 기능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 (1) 가. 是ㄹ 念乙 作ㄹ 已ㄹ ㅅㅑㅑ 卽支 便ㄹ 之ㄹ 施ㄹ 而ㄹ 悔ㄹ  
乙 所ㄹ 無ㄹ ㄹ ㄹ ㄹ 乙 (화소 35: 11,14-15)<sup>4)</sup>  
나. 菩薩ㄹ 是ㄹ ㅅㅑㅑ 時ㄹ 心ㄹ ㅑ 是ㄹ 念乙 作ㄹ ㄹ 丁 一切恩愛ㄹ 會[恨]  
ㄹ 乃ㄹ ㅅㅑㅑ 當ㄹ 別離ㄹ ㄹ ㄹ (화소 35: 12,15-16)  
다. 是ㄹ 念乙 作ㄹ 已ㄹ ㅅㅑㅑ 悉ㄹ 皆ㄹ 施與ㄹ ㄹ 心ㄹ ㅑ 悔恨、無  
ㄹ ㄹ ㄹ (화소 35: 12,18-20)  
라. 聞ㄹ 已ㄹ ㅅㅑㅑ 著ㄹ 不ㄹ ㄹ 有、非ㄹ ㄹ ㄹ 了達ㄹ ㄹ (화소 35:

바란다.

- 3) 이곳의 [고곤]과 [아곤]은 母音調和를 가정한 것이다. 이들을 [고곤]과 [아곤]으로 表音하여 모음조화를 배제할 수도 있다.  
4) 밑줄은 물론 필자가 쳤다. 出典의 ‘화소’는 書名이고 35는 卷次이다. 書名과 卷次 사이에 異本名이 들어갈 때도 있다. 11은 張次이며 14-15는 行을 뜻한다.

## 13.2-3)

- (2) 衆生ヲ 資身セ 具乙 有 4尸 未リノ 乙、見ロハㄱ 是ニセシメ 時十 菩薩  
工匠リ尸 爲の乙ンテ (화엄 14: 19.12-13)

(1)은 『華嚴經疏』 卷第三十五에, (2)는 『華嚴經』 卷第十四에 쓰인 '-로하ㄱ [고근]'의 예이다. 우선 이 두 문헌에만 '-로하ㄱ [고근]'이 쓰였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 두 자료는 12세기의 석독구결 자료로서 13세기 문헌인 『合部金光明經』 卷第三, 『舊譯仁王經』 上, 『瑜伽師地論』 卷第二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의 자료이다.<sup>5)</sup> 따라서 '-로하ㄱ [고근]'은 이른 시기의 석독구결에만 나타나는 古形 口訣吐이다. (2)의 '見로하ㄱ [보고근]'을 李丞宰·沈在箕 (1998:106)에서는 分綴하여 '보곡은'으로 읽었다. 이에 대해 南豊鉉(2000:22)은 조건법에 쓰였음을 확인하면서 '보고근'으로 읽었고, 金斗燦(2000:443)은 '보고기'으로 읽으면서 '보고서는'으로 번역하였다.

이 '-로하ㄱ'에 대하여 황선엽(2002:95)은 '-고근'으로 읽으면서 현대국어의 '-고서는' 정도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로하ㄱ [고근]'을 '-로[고] + 하[ㄱ] + ㄱ[은]' 정도로 분석하여<sup>6)</sup> '-로하ㄱ [고근]'이 문맥에 따라 '계기 + 한정' 또는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해석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ㅅ하ㄱ [아근]'의 예로서 『華嚴經疏』 卷第三十五에만 나온다. 이곳의 '-ㅅ하ㄱ [아근]'도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므로(황선엽 2002:96) '-로하ㄱ [고근]'과 의미 차이가 없다.

- (3) 가. 世間 何 處 乙 從 七 來 ンテ 去 ㅅ하ㄱ 何 所 七 十 至 ン (화소 35: 8.5-6)

나. 世界 何 處 乙 從 七 來 ンテ 去 ㅅ하ㄱ 何 所 七 十 至 ン 七 七 〇 尸 人 (화소 35: 8.6-7)

5) 이것은 석독구결의 기입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南豊鉉(1996)과 南權熙(1997)을 종합해 보면 『華嚴經疏』는 12세기 초기, 『華嚴經』은 12세기 중기, 『合部金光明經』은 13세기 중기, 『舊譯仁王經』은 13세기 중기 또는 후기, 『瑜伽師地論』은 13세기 후기의 구결이라 할 수 있다.

6) '-로[고]'는 연결어미로 보고, '-하[ㄱ]'과 '-ㄱ[은]'은 보조사로 보았다.

이제 ‘-로ㄴㄱ[고훈]’과 ‘-ㅅㄴㄱ[아훈]’의 예를 정리하기로 한다. 황선엽(2002:97)에서 이미 논의된 것처럼 이들도 ‘계기 + 한정’ 또는 ‘계기 + 조건’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고서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 (4) 가. 時ㄹ+ 疾ㄹ 捨ㄴᄃᄂ 以ᄃ 衆生乙 濟ㄹ 尸丁ㄴ나ㄱ 念尸 已ᄃㅅ로ㄴㄱ  
 之ㄹ乙 施ㄴ尸ム (화소 35: 11,3-5)  
 나. 是ㄹ 念乙 作尸 已ᄃㅅ로ㄴㄱ 卽支 便ㄹ 之ㄹ乙 施ㄴ나 (화소 35:  
 12,3-5)
- (5) 大衆ㄹ 月光王ㄹ 十四王→ 量、無七ㄹ 功德藏乙、歡ㄴ니트르ㄹ乙、聞  
ㅅ로ㄴㄱ 大法利乙、得ヒハㄴ나 (구인: 11,14-15)

(4)의 예들은 모두 ‘-尸 已ᄃㅅ로ㄴㄱ’의 구문에 사용된 것으로서 (1)의 ‘-尸 已ᄃㅅ로ㄴㄱ’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兩者는 文法 기능이나 意味 기능이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機能上의 一致에서 ‘-로ㄴㄱ[고훈]’이 ‘-로ㄴㄱ[고근]’의 異表記 또는 異形態라는 假說이 성립한다.

더불어 ‘-ㅅㄴㄱ[아훈]’의 예문을 살펴보자. (7)의 ‘ㄴᄃㅅㄴㄱ[하아훈]’을 李丞宰·沈在箕(1998:100,102)은 ‘하아훈’으로 表音하였다.

- (6) 此ㄹ 陀羅尼乙 得尸 已ᄃㅅᄃㅅㄴㄱ 法七 光明乙 以ᄃ 廣ㄹ 衆生→ 爲三 於  
 法乙 演說ㄴ尸ムㄴ나ㄹ (화소 35: 25,14-15)
- (7) 가. 菩薩ㄹ 三昧七 中ᄃ+ 住在ㅅᄃㅅㄴㄱ 種種七 自在ム 衆生乙 攝ㄴ나ㄱ:  
 (화엄 14: 17,4-5)  
 나. 菩薩ㄹ 此ㄹ→+ 住在ㅅᄃㅅㄴㄱ 普ㄹ 觀察ㄴ로 宜ㄹ→+ 隨ㄴ 示現ㄴᄃ尔  
 衆生乙 度ㄹ나ᄃ (화엄 14: 17,20-21)

(6)의 ‘-尸 已ᄃㅅᄃㅅㄴㄱ’은 (1)의 ‘-尸 已ᄃㅅ로ㄴㄱ’이나 (4)의 ‘-尸 已ᄃㅅ로ㄴㄱ’과 문법 및 의미 기능이 같다. (7)의 ‘-ㅅᄃㅅㄴㄱ[아훈]’도 ‘-고서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계기 + 한정’ 또는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6-7)의 ‘-ㅅᄃㅅㄴㄱ[아훈]’도 (3)의 ‘-ㅅㄴㄱ[아근]’의 異表記 또는 異形態라는 假說이 역시 성립한다.

## 3. ‘-ㄱ-’의 ‘-ㄱ-’ 弱化·脫落 假說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ㄱ-’과 ‘-ㄱ-’과 ‘-ㄱ-’과 ‘-ㄱ-’은 同一한 構成의 異表記 관계에 있거나 異形態 관계에 있다. 번거로움을 피하여 이들을 이제 각각 ‘-ㄱ-’과 ‘-ㄱ-’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이 ‘-ㄱ-’과 ‘-ㄱ-’은 同音의 異表記일까 그렇지 않으면 同一形態素의 異形態일까?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해석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이들의 ‘ㄱ’과 ‘ㄱ’을 한때 異表記 관계로 파악한 적이 있다.<sup>7)</sup> 물론 이들의 文法 기능이나 意味 기능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 異表記說의 논거로는 漢字의 字形 ‘ㄱ’을 上下 방향으로 뒤집으면 ‘ㄱ’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sup>8)</sup>

(8) 火, 羊, 善, 弟, 兌, 說, 鄭, 送, 尙, 肖, 猶, 尊

실제로 (8)에 제시한 漢字의 ‘ㄱ’ 부분을 ‘ㄱ’로(또는 ‘ㄱ’ 부분을 ‘ㄱ’로) 쓰더라도 漢字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漢字가 적지 않으므로 釋讀口訣에서도 ‘-ㄱ-’과 ‘-ㄱ-’의 ‘ㄱ’과 ‘ㄱ’가 異表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ㄱ-’과 ‘-ㄱ-’ 두 가지가 모두 [ㄱ]으로 表音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ㄱ-’과 ‘-ㄱ-’이 同音, 예컨대 ‘-ㄱ-’의 異表記 관계라면 둘의 音相이 똑같다고 前提하여야 한다.<sup>9)</sup> 그런데 과연 ‘-ㄱ-’과 ‘-ㄱ-’이 同一한 音相을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ㄱ-’을 表記 對象으로 한 것이라면 ‘-ㄱ-’만으로 족하므로 굳이 ‘-ㄱ-’을 이용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ㄱ-’(또는 ‘-ㄱ-’)이 표기 대상이라면 ‘-ㄱ-’만으로 족하므로 구태여 ‘-ㄱ-’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에서 ‘-ㄱ-’

7) 口訣學會의 월례강독회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8) 이러한 견해는 金斗燦 先生의 발표 내용을 빌린 것이었는데, 선생의 어느 논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인용하지 못하였다.

9) 원칙적으로 音相이 同一할 때에만 ‘異表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과 ‘-ㄴㄱ’이 同一 音相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解讀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表記가 다르다면 音相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ㄱ’과 ‘-ㄴㄱ’이 ‘-훈’을 표기한 것으로서 兩者가 異表記 관계에 있다면 다른 환경의 ‘-ㄴㄱ’을 ‘-ㄱ’으로 표기한 예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예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음 예의 ‘-ㄴㄱ’이 ‘-ㄱ’으로 표기되는 일이 없다.

(9) 가. 今ㄴㄱ, 亦ㄴㄱ, 又ㄴㄱ

나. 有堅固ㄴㄱ 無ㄴㄱ入乙 見ㄴ (화소 35: 13,4-6)

다. 菩薩ㄱ 是ㄴ 等ㄴㄱ 量ㄴ 無ㄴㄱ 慧藏乙 如支ㄴㄱ 成就ㄴㄱ 少ㄴㄱ  
ㄱ 方便乙 以ㄴ 一切法乙 了ㄴㄱ (화소 35: 19,9-11)

이것은 ‘-ㄱ’과 ‘-ㄴㄱ’이 異表記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이제 ‘-ㄱ’과 ‘-ㄴㄱ’이 異形態 관계에 있다는 假說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ㄱ’은 ‘-근’으로 읽고 ‘-ㄴㄱ’은 ‘-훈’으로 읽어야 둘의 音相이 서로 달랐다고 본다. ‘-ㄱ[근]’과 ‘-ㄴㄱ[훈]’의 文法과 意味 기능은 同一한데 다만 音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계를 흔히 異形態 관계라고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ㄱ’을 ‘-근’으로 읽는 것은 (2)의 ‘見ㄴㄱ’을 李丞宰·沈在箕(1998:106)에서 ‘보곡인’으로 읽은 것과 황선엽(2002)의 ‘-근’을 들 수 있다. ‘보곡인’을 連綴하면 ‘보고근’이 되고, 황선엽(2002)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後代의 ‘見ㄴㄱ[보고근]’과 같다. ‘-ㄴㄱ’은 누구나 다 ‘-훈’으로 읽어 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讀法에 대해 異意를 제기할 수도 있다. ‘見ㄴㄱ’의 ‘ㄱ’이 子音 ‘ㄱ’만을 表音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疑問이다. ‘ㄱ’은 釋讀口訣의 ‘當ㄱ[반드기]’와 ‘事ㄱㄱ 尔[섬기스바꿈]’(華嚴 14: 2,20) 그리고 吏讀의 ‘並只[다모기]’ 등의 예에서처럼 ‘기’로 읽어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唯ㄱ[오직], 必ㄱ[비록], 不ㄱ[아니득], 未ㄱ[아니득], ㄴㄱㄱ[헛곡], ㄴㄱㄱ[헛악], ㄴㄱㄱ[헛드록]’ 등의 예처럼 ‘ㄱ’이 後代의 ‘ㄱ’에 對應하는 예가 더 많다. 따라서 ‘ㄱ’을 ‘ㄱ’으로 읽어도 거리낄 것이 없다.

'-ㄱ'을 '-ㄴ'으로 읽을 때 다음의 '訖<sub>ㄱ</sub>ㄱ<sub>ㄱ</sub>'이 특히 눈길을 끈다. (10.가)의 '訖<sub>ㄱ</sub>ㄱ<sub>ㄱ</sub>'은 (10.나)의 '得<sub>ㄱ</sub>ㄱ<sub>ㄱ</sub> + ㄱ [언언다긴]' 등의 助詞類 조건문 (南豐鉉 2000)과 어울려 쓰였으므로 '조건'의 의미가 확인된다. 즉 이 '-ㄱ<sub>ㄱ</sub>'은 '조건'의 의미를 가지므로 '-ㄱ<sub>ㄱ</sub>'과 同一한 형태론적 구성이다.

- (10) 가. 飯食乙 已<sub>ㄱ</sub> 訖<sub>ㄱ</sub>ㄱ<sub>ㄱ</sub> 當 願 衆生 所作乙 皆<sub>ㄱ</sub> 辨<sub>ㄱ</sub> 諸<sub>ㄱ</sub> 佛法  
乙 具<sub>ㄱ</sub> 立 (화엄 14: 7,20)  
나. 若 美食乙 得<sub>ㄱ</sub>ㄱ<sub>ㄱ</sub> + ㄱ 當 願 衆生 其願乙 滿足<sub>ㄱ</sub> 心<sub>ㄱ</sub> + 羨欲<sub>ㄱ</sub>  
尸 無<sub>ㄱ</sub> 立 (화엄 14: 7,14)

'ㅅ'을 '기'로 읽는 독법에 따라 '-ㄱ<sub>ㄱ</sub>'을 '-고기<sub>ㄱ</sub>'으로 읽으면 이를 '-ㄱ<sub>ㄱ</sub> [고<sub>ㄱ</sub>]'과 연결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반면에 'ㅅ'을 'ㄱ'으로 읽는 독법에 따라 이를 '-곡<sub>ㄱ</sub>'으로 읽으면 '-ㄱ<sub>ㄱ</sub>'과 연결하기가 쉽다. '-ㄱ<sub>ㄱ</sub>'은 分綴 표기로는 '-곡<sub>ㄱ</sub>'이고 連綴 표기로는 '-고<sub>ㄱ</sub>'인데 이 둘을 중복한 표기 즉 重綴 표기로는 '-곡<sub>ㄱ</sub>'이 된다. 이에 따르면 '訖<sub>ㄱ</sub>ㄱ<sub>ㄱ</sub>'의 '-ㄱ<sub>ㄱ</sub>'이 'ㄱ'을 重綴 표기한 '-곡<sub>ㄱ</sub>'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ㄱ<sub>ㄱ</sub>'의 'ㅅ'도 '기'가 아니라 'ㄱ'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소적 교체나 형태음소적 교체에서는 어느 것이 基本形이고 어느 것이 變異形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그 교체가 공시적인 것인지 통시적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앞에서 인용한 예들을 모두 한 곳에 정리하기로 한다. 語尾構造體와 文獻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용례의 출현 횟수를 숫자로 나타내었다.

(11) '-ㄱ<sub>ㄱ</sub> [ㄱ]'의 예

문헌 \ 어형	-ㄱ <sub>ㄱ</sub> [고 <sub>ㄱ</sub> ]	-ㄱ <sub>ㄱ</sub> [곡 <sub>ㄱ</sub> ]	-ㄱ <sub>ㄱ</sub> [아 <sub>ㄱ</sub> ]
華嚴經疏	6 회	0 회	2 회
華嚴經	1 회	1 회	0 회

## (12) ‘-ㄴㄱ[훈]’의 예

문헌 \ 어형	-ㄴㄱ[고훈]	-ㅅㄴㄱ[아훈]
華嚴經疏	3 회	1 회
華嚴經	0 회	2 회
舊譯仁王經	1 회	0 회

이 통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ㄴㄱ[곤]’과 ‘-ㄴㄱ[훈]’은 주로 12세기 자료에 나온다. 13세기 자료에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둘째, ‘-ㄴㄱ[곤]’이 ‘-ㄴㄱ[훈]’보다는 先代形이다. 13世紀 中·後半의 자료인 『舊譯仁王經』에 ‘-ㄴㄱ[곤]’은 보이지 않고 ‘-ㄴㄱ[훈]’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도 있다. 첫째, 12세기의 共時的 基本形으로는 ‘-ㄴㄱ[훈]’보다 ‘-ㄴㄱ[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形態音素 規則 ‘ㄱ → ㅎ’이 隨意的으로 적용되어 ‘-ㄴㄱ[곤]’이 ‘-ㄴㄱ[훈]’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sup>10)</sup> 이를 ‘-ㄱ-’의 共時的 弱화 현상이라 부르기로 한다. 둘째, ‘-ㄴㄱ[곤] > -ㄴㄱ[훈] > -ㄱ[온]’의 通時的 變化, 즉 ‘-ㄱ- > -ㅎ- > -ㅇ-’의 變化가 있었다. 이 변화의 첫 단계는 ‘-ㄱ-’의 通時的 弱화 현상으로, 둘째 단계는 약화된 ‘-ㄱ-’의 通時的 脫落 現象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假說을 세웠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瑜伽師地論』 卷第二十의 ‘-ㄴㄱ[고곤]’과 ‘-ㅅㄴㄱ[아곤]’이다. 이들이 앞에서 논의한 ‘-ㄴㄱ[고곤]’ 및 ‘-ㅅㄴㄱ[아곤]’과 同意 관계에 있음은 황선엽(2002:96)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13) 가. 此 除 口 斤 更 餘 生 圓 滿 若 過 ㄴㄱ 若 增 ㄴㄱ 無 ㄴㄱ 卍 (유가 20: 3,22-4,6)

나. 此 除 口 斤 更 若 過 ㄴㄱ 若 增 ㄴㄱ 無 ㄴㄱ 卍 丁 (유가 20: 12,18-13,03) (이밖에도 10예가 더 있음)

(14) 가. 是 如 丈 尸 羅 善 圓 滿 已 ㄴㄱ 斤 五 相 以 精 勤 方 便 諸 善 品 修 ㄴㄱ 應 七 (유가 20: 17,17-18,1)

나. 云 何 ㄴㄱ 聖 諦 現 觀 十 入 尸 已 ㄴㄱ 斤 速 疾 通 慧 證 得 爲 欲 人 諸 歡 喜 事 作 意 思 惟 ㄴㄱ 卍 (유가 20: 28,9-16)

10) 국어 음韻史에서 ‘ㄱ > ㅎ’의 변화는 자주 나타나지만(李基文 1972/77, 3章 참조) ‘ㅎ > ㄱ’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5) 가. 又此三摩地得<sub>3</sub>斤當ハ知<sub>1</sub> (유가 20: 14,22-15,4)

나. 或夜分<sub>3</sub>十居<sub>3</sub>斤而<sub>3</sub>睡眠<sub>1</sub>樂着<sub>3</sub>或晝分<sub>3</sub>十居<sub>3</sub>斤王  
賊等<sub>1</sub>雜染言論<sub>1</sub>樂<sub>3</sub> (유가 20: 26,9-14)

『瑜伽師地論』은 13세기 후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필자의 '-ㄱ- > -ㅎ-' 가설이 성립하려면 『瑜伽師地論』에서는 基本形인 '-ㄱ斤[고근]'이나 '-3斤[아근]' 뿐만 아니라 弱化形인 '-ㄱ<sub>1</sub>[고흔]'이나 '-3<sub>1</sub>[아흔]'이 자주 출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가설이 通時的 根據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基本形 '-ㄱ斤[고근]'과 '-3斤[아근]'만 나타나는 듯하여 필자의 가설을 위협한다.

그러나 이 위협은 필자의 가설을 무너뜨릴 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脫落形이라 할 수 있는 '-ㄱ<sub>1</sub>[곤]'과 '-3<sub>1</sub>[안]'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을 때 基本形인 '-ㄱ斤[고근]'과 '-3斤[아근]'만 검색하는 데에서 그칠 때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ㄱ-'의 弱化形인 '-ㄱ<sub>1</sub>[고흔]'과 '-3<sub>1</sub>[아흔]' 그리고 脫落形인 '-ㄱ<sub>1</sub>[곤]'과 '-3<sub>1</sub>[안]'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검색해보면 脫落形인 '-ㄱ<sub>1</sub>[곤]'과 '-3<sub>1</sub>[안]'이 『瑜伽師地論』에서 새로이 확인된다. 이 '-ㄱ-' 脫落形은 'ㄱ'의 약화·탈락 현상을 오히려 지지해 주는 긍정적인 자료이다.

(16) 가. 是如<sub>1</sub>入<sub>1</sub>聖法<sub>3</sub>十略<sub>1</sub>二種有<sub>7</sub> (유가 20: 3,22-4,6)

廣<sub>1</sub>說<sub>1</sub>十六種有<sub>7</sub> (유가 20: 4,10-14) 17회

나. 何<sub>1</sub>入<sub>1</sub>定心中<sub>7</sub>慧<sub>1</sub>於所知<sub>7</sub>境<sub>3</sub>十清淨<sub>3</sub>轉<sub>1</sub>入<sub>1</sub>故<sub>1</sub>  
(유가 20: 6,14-17) 4회

다. 唯<sub>1</sub>最後身<sub>1</sub>任持<sub>1</sub>所<sub>3</sub>有<sub>4</sub>第二餘身<sub>1</sub>畢竟不起<sub>1</sub> (유가 20: 30,18-31,02)

(17) 가. 若三摩地得<sub>3</sub>而<sub>1</sub>圓滿未<sub>1</sub>亦自在未<sub>1</sub> (유가 20: 23,06-10)

나. 若<sub>1</sub>有<sub>1</sub>已<sub>3</sub>三摩地得<sub>3</sub>而<sub>1</sub>圓滿未<sub>1</sub>自在<sub>1</sub>入<sub>1</sub>得<sub>1</sub>未<sub>1</sub> (유가 20: 27,9-16)

『瑜伽師地論』에는 '-ㄱ<sub>1</sub>[곤]'과 '-3<sub>1</sub>[안]'이 나오는데,<sup>11)</sup> (16)가의

11) '-ㄱ-' 脫落形 '-ㄱ<sub>1</sub>[곤]'은 총 22회나 쓰인 데에 비하여 基本形 '-ㄱ斤[고근]'은 13회가 쓰였다. 반면에 脫落形 '-3<sub>1</sub>[안]'은 (17)의 두 예에 불과한 데에

‘略口’과 ‘說口’은 각각 ‘(간단히) 줄이면’과 ‘말하면’ 정도로 해석하여야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린다. (16.나)의 ‘何<sub>1</sub>口’도 ‘어찌 그러한가 하면’으로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諺解文의 ‘엇대어뇨 ㅎ란디’의 ‘ㅎ란디’가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南豐鉉(2000:27-28)도 이미 이들을 조건법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16.다)의 ‘4口’은 ‘두고서는’ 정도로 해석되므로 ‘한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이들에게서 ‘조건’이나 ‘한정’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은 이들의 ‘-口[곤]’이 ‘-口斤[고곤]’에 遡及함을 뜻한다.

(17)의 ‘-3 7 ㅏ[안여]’는 ‘-3 7 [안]’에 ‘-ㅏ[여]’가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석하는 까닭은 ‘-3 7 ㅏ[안여]’에서 ‘한정’의 의미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17.나)를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나. 이미 三摩地를 얻고서(는) 圓滿하지 않거나 自在함을 얻지 않거나 한 이(사람)도 간혹 있다.

여기에서 ‘한정’의 의미가 ‘-3 7 ㅏ[안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 7 ㅏ[안여]’의 ‘-3 7 [안]’은 ‘-3 斤[아곤]’에 遡及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瑜伽師地論』이 ‘-7- > -ㅎ- > -ㅏ-’의 通時的變化를 거스르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다. 基本形과 脫落形이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瑜伽師地論』은 ‘-7-’의 약화·탈락을 경험한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弱化形인 ‘-ㅎ-’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弱化形은 석독구결 자료인 『華嚴經疏』와 『華嚴經』 그리고 여러 誦讀口訣 자료에서(後述) 보충할 수 있다.

『瑜伽師地論』에서 ‘-口[곤]’과 ‘-3 7 [안]’이 쓰인 것처럼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이들이 사용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華嚴經疏』, 『華嚴經』, 『舊譯仁王經』, 『舍部金光明經』에 ‘-口[곤]’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계기 + 한정’ 또는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口[곤]’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찾지 못하였다. 또한 이 자료에는 연결어미로 쓰인 ‘-3 7 [안]’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四種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 의미로 쓰인 ‘-口[곤]’과 ‘-3 7 [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둔다. 반면에 후술할 誦讀口訣에서는 이 의미를 가지면서 연결어미로 쓰인 ‘-口[곤]’과 ‘-

비하여 基本形 ‘-3 斤[아곤]’은 18회가 쓰였다.

ㅅㄱ[안]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이것은 '-ㄱ-'의 脫落形이 13세기 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출현하기 시작하였음을 암시한다.

#### 4. 後代 資料를 통한 檢證

지금까지 '-ㅅㄱ[곤]'의 '-ㄱ-'이 弱化되어 '-ㅅㄱ[훈]'의 '-ㅎ-'으로 바뀌는 變化를 가정하였다. 이 假說이 성립하려면 後代의 자료에서 '-ㅅㄱ[훈]'으로 弱化된 자료와, 다시 '-ㄱ[온]'으로 바뀌어 '-ㅎ-'이 脫落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석독구결의 '-ㅅㄱ[고곤]'에 對應하는 것으로 황선엽(2002)는 송독구결 자료에 두루 나오는 '-ㅅㅍ[고곤]'을 들었다. 이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ㅅㅍ[고곤]'과 '-ㅅㅍ[아곤]'의 '-ㄱ-'이 弱化되거나 脫落한 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誦讀口訣 자료 중에서 『楞嚴經』에 나오는 '-ㅅㅍ[고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영인하여 口訣資料叢書로 간행한 소곡본, 남권회본, 기림사본, 송성문본의 네 가지 『楞嚴經』에서 뽑았다.<sup>12)</sup> 해당 口訣吐가 쓰인 문장을 이 네 異本에서 각각 추출한 다음, 여기에 가람본 문장을 끼워 넣었다.<sup>13)</sup> 그리하여 86개의 문장에 나오는 119개의 구결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2) 여기에 모두 解題가 붙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叢書에서 '朴東燮本'으로 칭한 책은 지금은 素谷 南豐鉉 교수가 所藏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소곡본'으로 칭하였다. 이 해제에 따르면 소곡본과 남권회본은 13세기 말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南豐鉉 1990, 1995 및 李丞宰 1995). 여기에 나오는 구결에 대해 李丞宰(1993)은 소곡본이 13세기 말엽에서 14세기 초엽에, 남권회본은 14세기 초엽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림사본과 송성문본은 15세기 초엽에 간행되었다(南豐鉉 1990, 정재영 1996, 박성종 1996). 그런데 기림사본의 구결은 15세기 이전의 古形을 반영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南豐鉉 1990, 李丞宰 1993, 정재영 1996). 송성문본의 구결은 15세기 초엽에 기입된 것이다(南豐鉉 1990, 박성종 1996).

13) 가람본은 박진호(1996)이 소개한 자료로 奎章閣의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는 刊經都監 諺解本의 구결문과 번역문을 끼워 넣었으나 논문의 분량이 많아져 다시 생략한 곳이 많다.

- (18) 가. 如是乃至出土一丈口斤 中間; 還得一丈虛空<sub>ノヒヒ</sub> (능 소곡 3: 13  
 ㄴ,1-2)  
 나. 如是乃至出土一丈口斤 中間; 還得一丈虛空<sub>ノヒヒ</sub> (능 남권회 3: 20  
 ㄴ,2-3)  
 다. 如是乃至出土一丈口斤 中間; 還得一丈虛空<sub>ノヒヒ</sub> (능 기림사 3: 37  
 ㄱ,7-8)  
 라. 如是乃至出土一丈ノホ 中間; 還得一丈虛空<sub>ノヒヒ</sub> (능 가람 3: 20  
 ㄴ,2-3)  
 마. 如是乃至出土一丈ノ 中間; 還得一丈虛空<sub>ノヒヒ</sub> (능 송성문 3: 37  
 ㄱ,7-8)
- (19) 가.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口斤 畢竟無體<sub>ノヒヒ</sub> (능 소곡 3: 1ㄴ,5-6)  
 나.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口斤 畢竟無體<sub>ノヒヒ</sub> (능 남권회 3: 2ㄱ,4-5)  
 다.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口斤 畢竟; 無體<sub>ノヒヒ</sub> (능 기림사 3: 3ㄱ,3)  
 라.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口 畢竟無體<sub>ノヒヒ</sub> (능 가람 3: 2ㄱ,4-5)  
 마.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口 畢竟; 無體<sub>ノヒ</sub> (능 송성문 3: 3ㄱ,3)  
 바. 此聞<sub>1</sub> 離彼動靜二塵<sub>히</sub> 畢竟에 無體<sub>히</sub>라 (능 간경 3: 5ㄱ,9-5ㄴ,1)
- (20) 가. 小乘<sub>1</sub> 見道門<sub>1</sub> 斷三界貪嗔痴等 十分別惑<sub>ノ</sub> 乃證初果<sub>ノ</sub> (능 소  
 곡 4: 15ㄴ,2-3)  
 나. 小乘 見道門<sub>1</sub>; 斷三界貪嗔痴等 十分別惑<sub>口斤</sub> 乃證初果<sub>ノヒヒ</sub> (능 남  
 권회 4: 51ㄱ,1-2)  
 다. 小乘<sub>1</sub> 見道門<sub>1</sub>; 斷三界貪嗔痴等 十分別惑<sub>口</sub> 乃證初果<sub>ノヒヒ</sub> (능 기림  
 사 4: 43ㄱ,3-4)  
 라. 小乘<sub>1</sub> 見道門<sub>1</sub>; 斷三界貪嗔痴等 十分別惑<sub>ノ</sub> 乃證初果<sub>ノ</sub> (능 가  
 람 4: 51ㄱ,1-2)  
 마. 小乘<sub>1</sub> 見道門<sub>1</sub>; 斷三界貪嗔痴等 十分別惑<sub>ノ</sub> 乃證初果<sub>ノ</sub> (능  
 송성문 4: 43ㄱ,3-4)

소곡본(9/14회), 남권회본(11/25회), 기림사본(9/회), 가람본(0/4)까지는 ‘  
 口斤[고근]’이 유지되었지만 송성문본(0/0회)에서는 이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  
 거나 변화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sup>14)</sup> 송성문본은 15세기 초엽의 자료이므로 ‘

14) ( ) 안에 구절토의 출현 횟수를 적어 놓았다. 이 출현 횟수를 정할 때 卷第二, 卷第三, 卷第四의 3卷에 나오는 횟수를 ‘/’의 앞에 적고 10卷 전체에 나오는 횟수를 ‘/’의 뒤에 적었다. 現傳하는 기림사본이 3권(卷第二, 卷第三, 卷第四)뿐이기 때문에 기림사본과의 비교에는 ‘/’앞의 수치가, 기타 이본의 비교에는 ‘/’ 뒤의 수치가 유효하다. 실수로 빠뜨려 썬에 넣지 못한 자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한문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제시한 수치의 객관성은 높은 편이다.

口斤[고곤]이 15세기 이전에 消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口斤[고곤]’이 ‘조건’이나<sup>15)</sup>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은 위의 여러 예를 통하여 잘 드러난다.

‘-口斤[고곤]’의 ‘-ㄱ-’이 약화·탈락한다면 다음의 (21.가)와 같은 通時的變化를 가정할 수 있다. 보조사 ‘-ㄱ[으]’이 먼저 탈락하였다면 (21.나)의 변화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 (21) 가. -口斤[고곤] > -口ㄴ[고흔] > -口[곤] > -口[고]  
 나. -口斤[고곤] > -口ㅅ[곡] > -口[고]

그런데 『楞嚴經』의 여러 이본을 두루 살펴보다라도 ‘-ㄱ-’의 弱化形으로 가정할 수 있는 ‘-口ㄴ[고흔]’의 예를 찾을 수가 없다. ‘-ㄴ斤[아곤]’의 ‘-ㄱ-’ 弱化形인 ‘-ㄴㄴ[아흔]’이 많이 쓰였으므로(後述) ‘-口ㄴ[고흔]’도 쓰였을 법한데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sup>16)</sup>

지금까지 소개된 誦讀口訣 자료의 구결토 목록을 모두 뒤져 본 결과 ‘-口ㄴ[고흔]’의 예를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황선엽(1996:116)이 소개한 一養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다음 예가 나온다.<sup>17)</sup>

- (22) [二; ㄱ 作鑽字ノ乙-+ 音ㄱ 同ㄴヒ 卽大鐘也々 是諸器中之一數ㄴㄴㄱ大故々 云如器中鑽々ㄴㄴヒ々] 準此ノ乙上+ 則順本經文ノ久 廻潤 非失口ㄴㄴ 但筆受 或寫錄錯誤々 鑽々 爲鐘爾ㄴㄴ 1 (1: 21c,2-3)

이는 ‘如器中鐘’의 ‘鐘’에 대한 세 가지 註釋 중 두 번째 것이다. 이 ‘-口ㄴ[고흔]’은 문맥으로 보아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가짐이 분명하다. “이에 準할 적에, 본래의 經文을 따르며 廻潤(潤文)이 실수가 아니라면, 오직 받아 적을 때 寫錄에 錯誤가 있어 鑽이 鐘이 된 것이다” 정도의 뜻이므로 ‘계기 +

15) 『梵網經』을 소개하면서 李丞宰(1990:122)에서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口斤’과 ‘설명’의 의미를 가지는 ‘-古ㅅ’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때에는 ‘-口斤’을 ‘-고늘’로 읽었는데 이제 ‘-고곤’으로 수정한다.

16) 『瑜伽師地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7) 황선엽(1996)이 작성한 구결토 목록에는 ‘-口斤, -口ㄴ, ㄴㅅ斤, ㄴㅅㄴ’ 등이 나온다.

조건'의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ㄱ-'의 弱化形 '-ㄴㄱ[고훈]'이 誦讀口訣에도 存在했음을 웅변해 주는 實證的 證據이다.

그런데도 『楞嚴經』에서 이 '-ㄴㄱ[고훈]'이 발견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기술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ㄴㄱ[고훈]'이 實在하였지만 表記法의 不完全性 탓으로 表記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기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서 '-ㄴㄱ[고훈]'이 實證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른바 Telescoping 현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즉 '-ㄱ-'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脫落하여 '-ㅇ-'이 되었다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ㅅ 斤[아곤]'의 '-ㄱ-'이 '-ㅎ-'으로 弱化된 '-ㅅ ㄴㄱ[아훈]'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는 '-ㄴㄱ[고훈]'으로의 弱化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대신에 基本形 '-ㄴ 斤[고곤]'에 바로 同音省略이 일어나 '-ㄴ ㄱ[곤]'이 되었다고 기술하는 방법이다.<sup>18)</sup> '-ㄴ ㄱ[고]'와 '-ㅅ ㄱ[곤]'의 두 子音이 모두 'ㄱ'이므로 同音省略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ㅅ 斤[아곤]'의 弱化形인 '-ㅅ ㄴㄱ[아훈]'의 예가 아주 많다는 사실과 대비할 때에 효과적이다. '-ㅅ 斤[아곤]'에서는 同音省略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ㄱ-'의 弱化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강조하여 셋째 해석을 택하여 둔다.<sup>19)</sup> 이에 따르면 『楞嚴經』에서는 同音省略이 적용되어 '-ㄴ ㄱ[곤]'만 나오지만,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서는 '-ㄱ-'의 弱化가 적용됨으로써 (22)의 '-ㄴㄱ[고훈]'이 살아 남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1.가)의 '-ㄱ-' 脫落形 '-ㄴ ㄱ[곤]'은 用例가 많지 않다. 그러나 '-ㄴ 斤[고곤]'의 '-ㄱ-'이 약화·탈락하여 '-ㄴ ㄱ[곤]'이 되었음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23) 가. 富那ㄱ 既盡諸漏ㄴ-ㄴ-ㄴ 尙縈疑悔 則ㄱ 餘衆ㄱ 可知也ㄴㄴㄴ! (능 소 곡 4: 1ㄴ.1-2)

18) 유사한 예로 東南 방언에서 '-것 같다'를 '-것다'로 발음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김주원 1984).

19) 同音省略이 흔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점과 문법 형태인 '-ㄱ-'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 탈락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

- 나. 富那<sup>7</sup> 既盡諸漏<sup>ㄴ-ㄱ-ㄴ</sup> 尙縈疑悔<sup>ㄴ-ㄱ-ㄴ</sup> 則餘衆<sup>7</sup> 可知也<sup>ㄴ-ㄱ-ㄴ</sup> 1  
(능 남권회 4: 28ㄴ,9-10)
- 다. 富那<sup>7</sup> 既盡諸漏<sup>ㄴ-ㄱ-ㄴ</sup> 尙縈疑悔<sup>ㄴ-ㄱ-ㄴ</sup> 則餘衆<sup>7</sup> 可知也<sup>ㄴ-ㄱ-ㄴ</sup> 1  
(능 기림사 4: 2ㄴ,1-2)
- 라. 富那<sup>7</sup> 既盡諸漏<sup>ㄴ-ㄱ-ㄴ</sup> 尙縈疑悔<sup>ㄴ-ㄱ-ㄴ</sup> 則餘衆<sup>7</sup> 可知也 (능 가람 4: 28ㄴ,9-10)
- 마. 富那<sup>7</sup> 既盡諸漏<sup>ㄴ-ㄱ-ㄴ</sup> 尙縈疑悔<sup>ㄴ-ㄱ-ㄴ</sup> 則餘衆<sup>7</sup> 可知也<sup>ㄴ-ㄱ-ㄴ</sup> 1 (능 송성문 4: 2ㄴ,1-2)
- (24) 가. 此文<sup>3</sup> 說沈下水火風輪<sup>ㄴ-ㄱ-ㄴ</sup> 又似地獄<sup>ㄴ-ㄱ-ㄴ</sup> 在三輪之下<sup>1</sup>? (능 소곡 8: 12ㄴ,9)
- 나. 此文<sup>3</sup> 說沈下水火風輪<sup>ㄴ-ㄱ-ㄴ</sup> 又似地獄<sup>ㄴ-ㄱ-ㄴ</sup> 在三輪之下<sup>3</sup> (능 남권회 8: 43ㄴ,1)
- 다. 此文<sup>3</sup> 說沈下水火風輪<sup>ㄴ-ㄱ-ㄴ</sup> 又似地獄<sup>ㄴ-ㄱ-ㄴ</sup> 在三輪之下<sup>7</sup> ㄱ<sup>ㄴ</sup> (능 가람 8: 43ㄴ,1)
- 라. 此文<sup>3</sup> 說沈下水火風輪<sup>ㄴ-ㄱ-ㄴ</sup> 又似地獄<sup>ㄴ-ㄱ-ㄴ</sup> 在三輪之下<sup>ㄴ-ㄱ-ㄴ</sup> (능 송성문 8: 33ㄴ,8-33ㄴ,1)
- (25) 가. 供佛<sup>ㄴ-ㄱ-ㄴ</sup> 足福<sup>ㄴ-ㄱ-ㄴ</sup> 稟法<sup>ㄴ-ㄱ-ㄴ</sup> 足慧<sup>ㄴ-ㄱ-ㄴ</sup><sup>20)</sup> (능 소곡 6:5ㄴ,14)
- 나. 供佛 足福<sup>ㄴ-ㄱ-ㄴ</sup> 稟法 足慧<sup>ㄴ-ㄱ-ㄴ</sup> (능 남권회 6: 28ㄴ,3-4)
- 다. 供佛 足福<sup>ㄴ-ㄱ-ㄴ</sup> 稟法<sup>ㄴ-ㄱ-ㄴ</sup> 足慧<sup>ㄴ-ㄱ-ㄴ</sup> (능 가람 6: 28ㄴ,3-4)
- 라. 供佛<sup>ㄴ-ㄱ-ㄴ</sup> 足福<sup>ㄴ-ㄱ-ㄴ</sup> 稟法<sup>ㄴ-ㄱ-ㄴ</sup> 足慧<sup>ㄴ-ㄱ-ㄴ</sup> (능 송성문 6: 13ㄴ,8-14ㄴ,1)

‘-ㄱ-’ 脫落形 ‘-ㄱ[곤]’은 소곡본(0/3회), 남권회본(2/4회), 기림사본(2/회), 가람본(0/1)에서 두루 발견되고 모두 ‘계기 + 조건’ 또는 ‘계기 + 한정’의 의미를 갖는다. ‘-ㄱ[곤]’은 ‘-ㄱ-’이 脫落한 것이기 때문에 後代의 자료인 송성문본에서 많이 발견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송성문본(0/0회)에서는 ‘-ㄱ[곤]’이 발견되지 않는다.

송성문본에서 ‘-ㄱ-’ 脫落形 ‘-ㄱ[곤]’이 보이지 않는 것은 修辭 疑問文에 많이 쓰이는 연결어미 ‘-ㄱ[곤]’의 登場과 관련이 있다. 이 연결어미 ‘-ㄱ[곤]’은 언해본에서 주로 ‘-거니/어니’ 또는 ‘-곤/온’으로 나타나고 後行節에 ‘誰, 云何, 豈, 寧, 況’ 등이 오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다. 修辭 疑問文의 ‘-ㄱ[곤]’은 ‘-ㄱ[곤], -ㄱ[곤], -ㄱ[곤], -ㄱ[곤]’ 등으로 遡及하는 일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ㄱ[곤]’을 ‘계기 + 조건’이나 ‘계기 +

20) 이것은 소곡본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ㄱ[곤]’에 대응하는 예가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符號의 일종일 것이다.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ㄱ[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sup>21)</sup> 즉 兩者는 同音異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兩者의 同音性은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文法 形態는 특히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同音異義 관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修辭 疑問文은 소곡본과 남권회본 『楞嚴經』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두 자료에 나오는 '-ㄱ[곤]'을 유심히 검토해 보면 修辭 疑問文의 연결어미로 쓰인 것이 '-ㄱ[고곤]'에 遡及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23-25)에 제시한 것과 같은 몇몇 문장에서만 '계기 + 조건'이나 '계기 + 한정'의 의미를 가질 뿐, 나머지 수십여 개의 예는 모두 修辭 疑問文에 쓰인 것이다. 더욱이 15세기 초엽 자료인 송성문본에서는 '계기 + 조건'이나 '계기 +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ㄱ[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兩者의 生存 競爭에서 舊形이 新形에 완패하였음을 뜻한다. 修辭 疑問文의 '-ㄱ[곤]' 즉 新形의 登場 이후 약 100년만의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여러 言語史에서 자주 보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무척 흥미롭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舊形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 즉 音相을 바꾸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특이하게도 가람본에만 나타나는 '-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성은 다음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ㄱ[고곤]'의 後裔이다.

- (26) 가. 若於本因 食物爲罪<sub>ㄱ</sub> 是人 罪畢<sub>ㄱ</sub> 遇物成形<sub>ㄱ</sub> 名爲怪鬼  
 나. 若於本因 食物爲罪<sub>ㄱ</sub> 是人 罪畢<sub>ㄱ</sub> 遇物成形<sub>ㄱ</sub> 名爲怪鬼  
 (능 남권회 8: 52-7)
- (27) 가. 猶如轉輪 互爲高下<sub>ㄱ</sub> 無有休息<sub>ㄱ</sub> 除奢摩他 及佛出世<sub>ㄱ</sub> 不可  
 停寢 (능 남권회 8: 54-7,8)  
 나. 猶如轉輪 互爲高下<sub>ㄱ</sub> 無有休息<sub>ㄱ</sub> 除奢摩他 及佛出世<sub>ㄱ</sub>  
 不可停寢<sub>ㄱ</sub> (능 가람 8: 54-7,8)
- (28) 가. 阿難 是諸天上 各各天人 則是凡夫 業果酬答 答盡<sub>ㄱ</sub>  
 入輪<sub>ㄱ</sub> (능 소곡 9: 5-13)  
 나. 阿難 是諸天上 各各天人 則是凡夫 業果 酬答 答盡<sub>ㄱ</sub> 入輪<sub>ㄱ</sub>  
 (능 가람 9: 8-2-3)

21) 황선엽(2002:94, 각주3)도 이 둘을 구별하였다.



이 '-ㄱㅌ'을 필자는 '-고ㄴ'으로 읽는다.<sup>22)</sup> 後術하겠지만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는 '-ㄱㅌ'이 '-ㄱㅌㄱ'과 같은 환경에 온다. 이 둘을 모두 '-아ㄴ'으로 읽어야만 음운론적으로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 이에 따라 '-ㄱㅌ'도 '-고ㄴ'으로 읽어야만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ㄱㅌ[고ㄴ]'의 형태론적 구성은 '-ㄱ[고] + ㄱ[으] + ㄱ[으]'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ㄱ-' 脫落形 '-ㄱ ㄱ[곤]'에 다시 '-ㄱ[으]'이 重加(Reduplication)된 것이다.<sup>23)</sup> '조건'이나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ㄱ[으]'을 거듭함으로써, 의미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修辭疑問文의 '-ㄱ ㄱ[곤]'과 同音이 되는 현상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29)	12-13C	13C 후	14C 초·중	14C 후	15C 초
가.		(修辭疑問 등장)	ㄱ ㄱ →	ㄱ ㄱ →	ㄱ ㄱ
나.	ㄱㅌ(ㄱㅌㄱ)		→ ㄱ ㄱ →	ㄱ ㄱ →	消滅
다.			(重加形 등장)	ㄱㅌ →	消滅

대부분의 '-ㄱ ㄱ[곤]'은 同音衝突의 회생양이 됨으로써 消滅하였지만 일부의 예에서는 重加의 방법을 택하여 끝까지 자신의 의미를 지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21.가)의 '-ㄱ[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21.가)의 '-ㄱ-' 脫落形 '-ㄱ ㄱ[곤]'이 희소한 데에 비하여, 보조사 '-ㄱ[으]'까지 탈락한 '-ㄱ[고]'는 용례가 아주 많다.<sup>24)</sup> 修辭疑問文의 '-ㄱ ㄱ[곤]'과 同音이 되는 현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ㄱ ㄱ[곤]' > '-ㄱ[고]'의 변화가 가속화된 결과일 것이다. 이 '-ㄱ[고]'는 송성문본(13/17회)과 가람본(11/13)에서 많이 보이고 기림사본(8/회)과 소곡본(4/9회)에서도 자주 보인다. 남권회본(2/2회)에도 나타나지만 아주 적은 편이다. 남권회본은 특히 古形인 '-ㄱㅌ[고ㄴ]'을 그대로 유지한 예가 아주 많다.

22) 南豐鉉 교수도 이미 구결강독회에서 이처럼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23) 국어에서의 重加 현상에 대해서는 金完鎭(1975)를 참고하기 바란다.

24) 그런데 이 '-ㄱ[고]'와 '-ㄱㅌ[고ㄴ]'의 意味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ㄱ[고]'에는 보조사 '-ㄱ[으]'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ㄱㅌ[고ㄴ]'이 가지는 '한정' 또는 '조건'의 의미는 보조사 '-ㄱ[으]'과 관계가 깊으므로 '-ㄱ[으]'이 탈락한 '-ㄱ[고]'에서는 이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나)처럼 ‘-ㅁㅈ[고근]’에서 보조사 ‘-ㄱ[으]’이 탈락하여 ‘-ㅁㅈ[곡]’으로 바뀌는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ㅁㅈ[곡]’은 ‘-ㄱ-’의 약화·탈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제 釋讀口訣의 ‘-ㅁㅈㅈ[아근]’과 ‘-ㅁㅈㅈㅈ[아흔]’에 대응하는 誦讀口訣의 구결토를 논의하기로 한다. 황선엽(2002)에서 이미 논의된 것처럼 이들은 誦讀口訣의 ‘-ㅁㅈㅈ[아근]’과 ‘-ㅁㅈㅈㅈ[아흔]’에 각각 대응한다. ‘-ㅁㅈㅈ[아근]’의 ‘-ㄱ-’이 弱化되면 ‘-ㅁㅈㅈㅈ[아흔]’의 ‘-ㅎ-’이 된다. 이 ‘-ㅎ-’이 脫落한 구결토로는 ‘-ㅁㅈㅈㅈ[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송독구결에서 확인된다.

- (30) 가. -ㅁㅈㅈㅈ[아근] > -ㅁㅈㅈㅈㅈ[아흔] > -ㅁㅈㅈㅈㅈㅈ[안] > -ㅁㅈㅈㅈㅈㅈㅈ[아]  
 나. -ㅁㅈㅈㅈㅈㅈ[아근] > -ㅁㅈㅈㅈㅈㅈㅈㅈ[아] > -ㅁㅈㅈㅈㅈㅈㅈㅈㅈ[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基本形 ‘-ㅁㅈㅈㅈㅈ[아근]’의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弱化形과 脫落形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료는 역시 『楞嚴經』의 여러 이본에서 찾았다.

- (31) 가. 如是<sub>ㅁㅈㅈㅈ</sub> 阿難 當知<sub>ㅁㅈㅈㅈ</sub> (능 소곡 3: 1ㄴ,7)  
 나. 如是 阿難 當知 (능 남권회 3: 2ㄱ,7)  
 다. 如是<sub>ㅁㅈㅈㅈㅈ</sub> 阿難<sub>ㅁㅈㅈㅈ</sub> 當知<sub>ㅁㅈㅈㅈ</sub> (능 기림사 3: 3ㄱ,5)  
 라. 如是 阿難<sub>ㅁㅈㅈㅈ</sub> 當知 (능 가람 3: 2ㄱ,7)  
 마. 如是 阿難<sub>ㅁㅈㅈㅈ</sub> 當知<sub>ㅁㅈㅈㅈ</sub> (능 송성문 3: 3ㄱ,5)  
 바. 如是 阿難<sub>ㅁㅈㅈㅈ</sub> 當知<sub>ㅁㅈㅈㅈ</sub> (능 간경 3: 5ㄱ,7)
- (32) 가. 佛言 六根解除<sub>ㅁㅈㅈㅈ</sub> 亦復如是<sub>ㅁㅈㅈㅈ</sub> 此根初解<sub>ㅁㅈㅈㅈ</sub> 先得人空<sub>ㅁㅈㅈㅈ</sub> 空性<sub>ㅁㅈㅈㅈ</sub> 圓明<sub>ㅁㅈㅈㅈ</sub> 成法解脫<sub>ㅁㅈㅈㅈ</sub> (능 남권회 5: 6ㄴ,12-13)<sup>25)</sup>  
 나. 佛言 六根<sub>ㅁㅈㅈㅈ</sub> 解除<sub>ㅁㅈㅈㅈ</sub> 亦復如是<sub>ㅁㅈㅈㅈ</sub> 此根初解<sub>ㅁㅈㅈㅈ</sub> 先得人空<sub>ㅁㅈㅈㅈ</sub> 空性<sub>ㅁㅈㅈㅈ</sub> 圓明<sub>ㅁㅈㅈㅈ</sub> 成法解脫<sub>ㅁㅈㅈㅈ</sub> (능 가람 5: 6ㄴ,12-13)  
 다. 佛言<sub>ㅁㅈㅈㅈ</sub> 六根解除<sub>ㅁㅈㅈㅈ</sub> 亦復如是<sub>ㅁㅈㅈㅈ</sub> 此根<sub>ㅁㅈㅈㅈ</sub> 初解<sub>ㅁㅈㅈㅈ</sub> 先得人空<sub>ㅁㅈㅈㅈ</sub> 空性<sub>ㅁㅈㅈㅈ</sub> 圓明<sub>ㅁㅈㅈㅈ</sub> 成法解脫<sub>ㅁㅈㅈㅈ</sub> (능 송성문 5: 11ㄴ,1-2)
- (33) 가. 如是聞波<sub>ㅁㅈㅈㅈ</sub> 注聞<sub>ㅁㅈㅈㅈ</sub> 則能爲實爲詰<sub>ㅁㅈㅈㅈ</sub> 注見<sub>ㅁㅈㅈㅈ</sub> 則能爲雷爲吼<sub>ㅁㅈㅈㅈ</sub> 爲惡毒氣<sub>ㅁㅈㅈㅈ</sub> 注息<sub>ㅁㅈㅈㅈ</sub> 則能爲雨<sub>ㅁㅈㅈㅈ</sub> 爲霧<sub>ㅁㅈㅈㅈ</sub> (능 소곡 8: 15ㄱ,14-15)  
 나. 如是聞波<sub>ㅁㅈㅈㅈ</sub> 注聞<sub>ㅁㅈㅈㅈ</sub> 則能爲實<sub>ㅁㅈㅈㅈ</sub> 爲詰<sub>ㅁㅈㅈㅈ</sub> 注見<sub>ㅁㅈㅈㅈ</sub> 則能爲雷<sub>ㅁㅈㅈㅈ</sub> 爲吼<sub>ㅁㅈㅈㅈ</sub> 爲惡毒氣<sub>ㅁㅈㅈㅈ</sub> 注息<sub>ㅁㅈㅈㅈ</sub> 則能爲雨<sub>ㅁㅈㅈㅈ</sub> 爲霧<sub>ㅁㅈㅈㅈ</sub> (능 남권회8: 48ㄴ,2-3)

25) 소곡본(5: 3ㄱ-4ㄴ)에서는 마침 이 부분이 缺落되었다.

다. 如是聞波ㄴ 注聞ㄴㄴ 則能爲責ㄴ 爲詰ㄴ 注見ㄴㄴ 則能爲雷ㄴ 爲吼ㄴ 爲惡毒氣ㄴ 注息ㄴㄴ 則能爲雨ㄴ 爲霧ㄴ (능 가람 8: 48ㄴ,2-3)

라. 如是聞波ㄴ 注聞ㄴ 則能爲責爲詰ㄴ 注見ㄴ 則能爲雷爲吼 爲惡毒氣 注息ㄴ 則能爲雨 爲霧ㄴ (능 송성문 8: 42ㄴ,7-8)

마. 如是聞波 | 注聞ㄴ면 則能爲責爲詰ㄴ고 注見ㄴ면 則能爲雷爲吼ㄴ며 爲惡毒氣ㄴ고 注息ㄴ면 則能爲雨爲霧ㄴ며 (능 간경 8: 98ㄴ,8-99ㄴ,1)

(34) 如是邪思ㄴ 結思ㄴ 則能爲方ㄴ 爲所ㄴ 結見ㄴ 則能爲鑑爲證ㄴ 結聽ㄴ 斤 則能爲大合石ㄴ 爲冰ㄴ 爲霜ㄴ 爲土ㄴ 爲霧ㄴ 結息ㄴ 則能爲大火車 火船火檻ㄴ 結管ㄴ 斤 則能爲大叫喚ㄴ 爲悔爲泣ㄴ 結觸ㄴ 則能爲大爲小ㄴ 爲一日中ㄴ 萬生萬死ㄴ 爲僞爲仰비. (능 송성문 8: 47ㄴ,1-4)<sup>26)</sup>

번거로움을 피하여 세 예만 들었지만 '-ㄴ' [아근]의 예는 아주 많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ㄴ' [아근]이 '조건'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34)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ㄴ' [아근]이 송성문본에도 쓰인 바 있다.<sup>28)</sup> '-ㄴ' [아근]은 15세기 초엽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이것은 앞의 '-ㄱ' [고근]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점으로서 '-ㄴ' [아근]이 '-ㄱ' [고근]보다 늦게 消滅하였음을 암시한다.<sup>29)</sup>

특이한 것은 基本形 '-ㄴ' [아근]이 남권회본(4/54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는 소곡본(2/2회)이 남권회본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脚註 12 참조) 소곡본에 '-ㄴ' [아근]의 예가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소곡본에서는 겨우 두 개의 예밖에 찾을 수 없었다. 남권회본의 54회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33)은 소곡본과 남권회본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ㄴ' [아근]에 관한 한 소곡본(2/2회), 기림사본(5/회), 송성문본(0/2회)의 세 異本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 남권회본

26)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송성문본만 제시하였다. 밑줄 친 곳은 모두 '-ㄴ' [아근], '-ㄴ' [아흔]과 관계가 있는 곳이다.

27) 李丞宰(1990:124)에서 '-ㄴ' [아]이 "기본적으로는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ㄱ'과 '-ㄴ'은 異形態 관계에 있다"고 한 바 있다.

28) 鄭鎬半(1997)의 구결토 목록에도 (34)의 '-ㄴ' [아]이 제시되어 있다.

29) 이것을 擬古의인 것으로 간주하여 '-ㄴ' [아근] 消滅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둘의 消滅 時期는 같아진다.

(4/54회)의 뒤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람본(1/11회)은 이 두 部類의 중간에 오는 듯하나, 크게 보면 소곡본과 같은 부류에 넣을 수 있다.

(32.가)의 예는 ‘-ㅅ 斤[아근]’과 ‘-ㅅ ㄴㄱ[아흔]’의 미세한 意味 差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남권회본의 ‘-ㅅ 斤[아근]’과 ‘-ㅅ ㄴㄱ[아흔]’에 송성문본의 ‘-ㅅ[면]’과 ‘-ㅅ[아]’가 각각 대응한다. 이것은 ‘-ㅅ 斤[아근]’이 ‘조건’의 의미가 강한데 비하여 ‘-ㅅ ㄴㄱ[아흔]’은 ‘한정’의 의미가 강함을 암시한다.

이제 ‘-ㄱ’이 ‘-ㅎ’으로 弱화된 ‘-ㅅ ㄴㄱ[아흔]’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ㄱ’ 弱化形 ‘-ㅅ ㄴㄱ[아흔]’이 앞에서 논의한 ‘-ㅅ 斤[아근]’과 同意임은 다음의 여러 예를 통하여 확인된다.

- (35) 가. 如是 ㄴㅅㄱ 阿難 當知 ㄴㅅㅅ (능 소곡 3: 1ㄱ,10)  
 나. 如是 ㄴㅅㄱ 阿難 當知 ㄴㅅㅅ (능 남권회 3: 1ㄴ,2)  
 다. 如是 ㄴㅅㄱ 阿難 當知 ㄴㅅㅅ (능 기림사 3: 2ㄱ,1)  
 라. 如是 阿難 當知 (능 가람 3: 1ㄴ,2)  
 마. 如是 阿難 當知 (능 송성문 3: 2ㄱ,1)
- (36) 가. 此亦如是 ㄴㅅ 目筈所成 ㄴㅅㅅ (능 소곡 2: 13ㄱ,3)  
 나. 此亦如是 ㄴㅅ 目筈所成 ㄴㅅㅅ (능 남권회 2: 45ㄱ,3)  
 다. 此亦如是 ㄴㅅ 目筈所成 ㄴㅅㅅ (능 기림사 2: 35ㄴ,2)  
 라. 此亦如是 ㄴㅅ 目筈所成 ㄴㅅㅅ (능 가람 2: 45ㄱ,3)  
 마. 此亦如是 ㄴㅅ 目筈所成 ㄴㅅㅅ (능 송성문 2: 35ㄴ,2)
- (37) 가. 若從根生 ㄱㅅ 必無動靜 ㄴㅅㄱ 如是聞體 本無自性 ㄴㅅㅅ (능 소곡 3: 1ㄴ,8-9)  
 나. 若從根生 ㄱㅅ 必無動靜 ㄴㅅ 如是聞體 本無自性 ㄴㅅㅅ (능 남권회 3: 2ㄱ,9)  
 다. 若從根生 ㄱㅅ 必無動靜 ㄴㅅ 如是聞體 本無自性 ㄴㅅㅅ (능 기림사 3: 3ㄱ,7-8)  
 라. 若從根生 ㄱㅅ 必無動靜 ㄴㅅ 如是聞體 本無自性 ㄴㅅㅅ (능 가람 3: 2ㄱ,9)  
 마. 若從根生 ㄱㅅ 必無動靜 ㄴㅅ 如是聞體 本無自性 ㄴㅅㅅ (능 송성문 3: 3ㄱ,7-8)

그런데 弱化形 ‘-ㅅ ㄴㄱ[아흔]’은 소곡본(10/17회), 남권회본(4/7회), 기림사본(11/회)에서는 자주 사용되었으나, 가람본(1/1회)에는 한 번 나오고 송성문본(0/0회)에서는 그 예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람본과 송성문본이 하나

의 부류로 묶인다는 점과, 이 약화형이 15세기 이전에 消滅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ㅅㅈ[아흔]'은 '-ㄱ[고곤]'과 같은 시기에 운명을 마친 듯하다.

소곡본과 기림사본에서는 基本形 '-ㅅㅈ[아곤]'의 예가 많지 않은 대신에 弱化形 '-ㅅㅈ[아흔]'이 많이 나온다. 소곡본과 기림사본에서는 주로 弱化形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남권회본에서는 基本形 '-ㅅㅈ[아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데에 비하여(4/54회) 弱化形 '-ㅅㅈ[아흔]'의 예는 많지 않다(4/7회). 남권회본은 '-ㄱ- > -ㅎ-'의 弱化가 시작되는 初期의 音相을 반영하고, 소곡본과 기림사본은 이 약화가 한창 進行 중인 時期의 音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ㅅㅈ[아흔]'의 '-ㅎ-'이 脫落하면 '-ㅅㅈ[안]'이 된다. 脫落形 '-ㅅㅈ[안]'의 예로 (33.가)가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두 예만 덧붙인다.

- (38) 가. 如是見火 燒聽<sub>ㅅㅈ</sub> 能爲鑊湯洋銅<sub>ㅅㅈ</sub> 燒息<sub>ㅅㅈ</sub> 能爲黑煙紫焰<sub>ㅅㅈ</sub>  
 (능 소곡 8: 15ㄱ,6)
- 나. 如是見火<sub>ㅅㅈ</sub> 燒聽<sub>ㅅㅈ</sub> 能爲鑊湯洋銅<sub>ㅅㅈ</sub> 燒息<sub>ㅅㅈ</sub> 能爲黑煙紫焰<sub>ㅅㅈ</sub>  
 (능 남권회 8: 48ㄱ,4)
- 다. 如是見火<sub>ㅅㅈ</sub> 燒聽<sub>ㅅㅈ</sub> 能爲鑊湯洋銅<sub>ㅅㅈ</sub> 燒息<sub>ㅅㅈ</sub> 能爲黑煙紫焰<sub>ㅅㅈ</sub>  
 (능 가담 8: 48ㄱ,4)
- 라. 如是見火<sub>ㅅㅈ</sub> 燒見<sub>ㅅㅈ</sub> 能爲熱砂熱灰<sub>ㅅㅈ</sub> 燒聽<sub>ㅅㅈ</sub> 能爲鑊湯洋銅<sub>ㅅㅈ</sub> 燒息<sub>ㅅㅈ</sub>  
 能爲黑煙紫焰<sub>ㅅㅈ</sub> (능 송성문 8: 42ㄱ,2-3)
- 마. 如是見火<sub>ㅅㅈ</sub> 燒聽<sub>ㅅㅈ</sub> 能爲鑊湯洋銅<sub>ㅅㅈ</sub> 燒息<sub>ㅅㅈ</sub> 能爲黑煙紫焰<sub>ㅅㅈ</sub>  
 (능 간경 8: 96ㄱ,7-8)
- (39) 가. 思必有所<sub>ㅅㅈ</sub> 故<sub>ㅅㅈ</sub> 結思<sub>ㅅㅈ</sub> 則爲受罪方所<sub>ㅅㅈ</sub> (능 소곡 8: 16  
 ㄱ,13-14)
- 나. 思必有所<sub>ㅅㅈ</sub> 故<sub>ㅅㅈ</sub> 結思<sub>ㅅㅈ</sub> 則爲受罪方所<sub>ㅅㅈ</sub> (능 남권회 8: 51ㄱ,2)
- 다. 思必有所<sub>ㅅㅈ</sub> 故<sub>ㅅㅈ</sub> 結思<sub>ㅅㅈ</sub> 則爲受罪方所<sub>ㅅㅈ</sub> (능 송성문 8: 47ㄱ,5)
- 라. 思必有所<sub>ㅅㅈ</sub> 故<sub>ㅅㅈ</sub> 結思<sub>ㅅㅈ</sub> 則爲受罪方所<sub>ㅅㅈ</sub> (능 송성문 8: 47ㄱ,5)
- 마. 思<sub>ㅅㅈ</sub> 必有所<sub>ㅅㅈ</sub> 故<sub>ㅅㅈ</sub> 結思<sub>ㅅㅈ</sub> 則爲受罪方所<sub>ㅅㅈ</sub> (능 간경 8: 109ㄱ,8-109ㄱ,1)

소곡본과 남권회본의 대비만으로도 '-ㅅㅈ[안]'이 '-ㅅㅈ[아곤]'의 '-ㄱ-' 脫落形임을 알 수 있다. '-ㅅㅈ[안]'의 의미 기능이 '계기 + 한정'이거나 '계기 + 조건'임도 잘 드러난다.

脫落形 '-ㅅㅈ[안]'은 소곡본(6/32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기림사본

(3/회), 가람본(2/3회), 송성문본(1/3회)에는 소수의 예가 나온다. 여기에서 소곡본을 대표하는 구결토는 弱化形 '-ㅅㅂ[아흔]'이라기보다 脫落形 '-ㅅㅂ[안]'임을 알 수 있다. 송성문본에 脫落形 '-ㅅㅂ[안]'이 쓰였다는 사실은 15세기 초엽까지도 이 구결토의 의미가 유지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남권회본(0/0회)에는 脫落形이 전혀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끈다. 남권회본에서 基本形 '-ㅅㅂ[아근]'의 예가 압도적으로 많고 弱化形 '-ㅅㅂ[아흔]'의 예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ㅅㅂ[과]'(33.다)의 '-ㅅㅂ[도]' '-ㅂ[도]' 脫落形에 넣을 수 있다.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ㅂ[고논]'처럼 重加形에 속하는 것으로 둘 다 '-아는'으로 읽힌다. '-ㅅㅂ[안]'의 '-ㅂ[은]'을 重加하면 '-ㅅㅂ[안] + ㅂ[은]'이 되는데 이를 '-ㅅㅂ[아는]' 혹은 '-ㅅㅂ[아논]'으로 표기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둔다.

- (40) 가. 如是歟氣 衝息ㅅㅂ 則能爲質爲履 ㅅㅂ 衝見ㅅㅂ 則能爲火爲炬 ㅅㅂ  
(능 소곡 8:15ㄴ,9)  
나. 如是歟氣 ㅅㅂ 衝息ㅅㅂ 則能爲質 ㅅㅂ 爲履 ㅅㅂ 衝見ㅅㅂ 則能爲火 ㅅㅂ 爲炬 ㅅㅂ (능 남권회 8:49ㄱ,4)  
다. 如是歟氣 ㅅㅂ 衝息ㅅㅂ 則能爲質 ㅅㅂ 爲履 ㅅㅂ 衝見ㅅㅂ 則能爲火 ㅅㅂ 爲炬 ㅅㅂ (능 가람 8:49ㄱ,4)  
라. 如是歟氣 ㅅㅂ 衝息ㅅㅂ 則能爲質爲履 ㅅㅂ 衝見ㅅㅂ 則能爲火爲炬 ㅅㅂ (능 송성문 8:43ㄱ,8)

'-ㅂ[은]'이 重加된 어형은 가람본('-ㅅㅂ[아논]' 0/8회)에 가장 많이 나오고<sup>30)</sup> 소곡본('-ㅅㅂ[아논]' 0/2회), 남권회본('-ㅅㅂ[아논]' 1/1회, '-ㅂ[여논]' 1/1회), 기림사본('-ㅅㅂ[아논]' 3/회)에도 나온다. 송성문본에는 重加形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류는 14세기 말엽까지의 과도기적 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重加가 일어난 원인은 두 가지인 듯하다. '조건' 또는 '한정'의 의미를 계속 유지하고, 연결어미 '-ㅅㅂ[안]'이 助詞類 '-ㅅㅂ[안]'과 同音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듯하다.

보조사 '-ㅂ[은]'까지도 脫落한 (30.나)의 '-ㅅㅂ[아]'에는 '조건'이나 '한정'의

30) '-ㅅㅂ[아]'가 없는 '-ㅂ[논]'도 나온다(0/3회).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논의를 생략한다.<sup>31)</sup>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ㄱ[고곤]'의 단계별 약화·탈락<sup>32)</sup>

文獻 \ 語形	-ㄱ[고곤]	-ㄱ[고훈]	-ㄱ[곤]
瑜伽師地論	13	0	22
능엄 남권회본	11 / 25	0	2 / 4
범망 엄인섭(가)본	15	0	0
원각 일사본	8	1	0
능엄 소곡본	9 / 14	0	0 / 3
능엄 기림사본	9 /	0 /	2 /
능엄 가람본	0 / 4	0	0 / 4
능엄 송성문본	0	0	0

(42) '-ㅅ[아곤]'의 단계별 약화·탈락<sup>33)</sup>

文獻 \ 語形	-ㅅ[아곤]	-ㅅ[아훈]	-ㅅ[안]
瑜伽師地論	18	0	2
능엄 남권회본	4 / 54	4 / 7	2 / 2
범망 엄인섭(가)본	5	1	2
원각 일사본	12	12	1
능엄 소곡본	2 / 2	10 / 17	6 / 34
능엄 기림사본	5 /	11 /	6 /
능엄 가람본	1 / 11	1 / 1	3 / 14
능엄 송성문본	0 / 2	0 / 0	1 / 3

31) 다만 참고삼아 출현 횟수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송성문본(13/60회)과 가람본(9/41)에서는 예측대로 이 '-ㅅ[아]'의 예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남권회본(11/15회)이나 소곡본(6/20)에서 용례가 가장 적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간다. 실제로는 기림사본(1/회)의 용례가 가장 적다. 기림사본의 특징으로 이 점을 지적할 만하다.

32) '-ㄱ[고곤여]'는 '-ㄱ[고곤]'의 예로, '-ㄱ[시곤]'은 '-ㄱ[곤]'의 예로 간주하여 수치에 넣었다. '-ㄱ[고오]', '-ㄱ[고육]'과 未詳인 것은 제외하였다.

33) 기림사본에 3회 나오는 '-ㅅ[아훈]'은 '-ㅅ[아훈]'의 예로 간주하여 수치에 넣었다.

종합하는 의미에서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一養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sup>34)</sup> 後述할 엄인섭(가)본 『梵網經』의 통계 자료도 여기에 추가하였다. 重加形은 모두 ‘-ㄱ-’ 脫落形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脫落形에 포함하여 출현 횟수를 정하였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ㄱ[고곤]’의 경우 남권회본, 소곡본, 기림사본이 하나의 部類로 묶일 수 있다. 이 세 異本에는 기본형 ‘-ㄱ[고곤]’의 출현 빈도 및 횟수가 높고 탈락형 ‘-ㄱ[곤]’이 모두 낮다. 반면에 가람본은 이들의 출현 횟수가 적고 기본형과 탈락형의 출현 빈도가 같다. 따라서 두 번째 部類로 간주하는데, 이는 重加形 ‘-ㄱ[고논]’이 가람본에만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송성문본은 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 번째 部類로 분류한다.

‘-ㅅ[아곤]’의 경우에는 세 部類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첫째로 남권회본은 기본형인 ‘-ㅅ[아곤]’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古形을 維持한 部類로 분류한다. 둘째로 소곡본은 기본형보다는 약화형 ‘-ㅅㅏ[아훈]’과 탈락형 ‘-ㅅㅓ[안]’의 출현 빈도가 더 높다. 이를 變化가 進行 중인 部類라 부른다면 기림사본과 가람본도 이 단계에 속할 것이다. 셋째로 송성문본은 ‘-ㄱ[고곤]’ 및 ‘-ㅅ[아곤]’과 관련된 어형이 별로 나오지 않으므로 變化가 完成된 部類로 보아 따로 분류한다.

‘-ㄱ[고곤]’과 ‘-ㅅ[아곤]’의 경우를 종합하면 ① 남권회본 ② 소곡본과 기림사본 ③ 가람본 ④ 송성문본의 넷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남권회본은 『瑜伽師地論』과 가장 가까운 자료가 된다.<sup>35)</sup> 이것은 소곡본에 대한 기존의 時期 추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sup>36)</sup> ‘-ㄱ[고곤]’ 및 ‘-ㅅ[아곤]’과 관련된 구결토에 관한 한, 남권회본이 소곡본보다 時期的으로 앞선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인섭(가)본 『梵網經』과 一養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은<sup>37)</sup> 어느

34)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대한 황선엽(1996)의 목록을 참고하였으나, 출현 횟수는 다시 수정하였다.

35) ‘-ㄱ[곤]’의 출현 횟수가 남권회본에 비하여 『瑜伽師地論』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차이를 강조하여 이 둘을 구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瑜伽師地論』에서 (16.가-나)와 같은 구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 즉 ‘略ㄱㅓ, 說ㄱㅓ, 何ㅏㅓㅓㅓ’ 등이 동일 구문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36)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권회본과 소곡본의 先後 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部類에 해당할까? 상대적 출현 빈도만을 감안하면 엄인섭(가)본은 남권희본 『楞嚴經』에 가장 가깝다. 基本形인 '-ㄱ[고곤]'과 '-ㄱ[아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一養本은 남권희본과 소곡본의 사이에 오는 듯하다. '-ㄱ[고곤]'에서는 이들과 차이가 없고 '-ㄱ[아곤]'의 빈도와 '-ㄱ[아흔]'의 빈도가 같으므로 一養本이 남권희본 『楞嚴經』과 소곡본 『楞嚴經』의 중간 정도라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梵網經』 송독구결 자료에 대해 간단히 덧붙이고자 한다. 『梵網經』 구결 자료로는 李宰幸(1990)이 소개한 엄인섭(가)본과 국립도서관본(국립본), 정재영(1996가)가 소개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정문연본), 南權熙(2002)에 종합된 계명대본과 엄인섭(나)본의 5種이 알려져 있다.

앞에서와 같이 세 이본에 나오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ㄱ[고곤]'의 단계별 약화·탈락

異本 \ 語形	-ㄱ[고곤]	-ㄱ[아곤]	-ㄱ[아흔]
범 계명대본	13	0	0
범 엄(가)본	15	0	0
범 엄(나)본	13	0	0
범 국립본	15	0	0
범 정문연본	12	0	0

(44) '-ㄱ[아곤]'의 단계별 약화·탈락

異本 \ 語形	-ㄱ[아곤]	-ㄱ[아흔]	-ㄱ[아]
범 계명본	5	1	1
범 엄(가)본	5	1	2
범 엄(나)본	5	0	2
범 국립본	6	0	0
범 정문연본	5	0	1

37) 이 두 자료에는 '-ㄱ-'의 약화와 탈락에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아 논의 대상에 넣었다. 이에 비하여 朴喜淑(1978), 金斗燦(1987), 金斗燦(1989), 崔銀圭(1993), 박진호(1996), 남경란(2000), 박부자(2000) 등이 소개한 송독구결 자료에는 이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김두찬(1989)의 목록에는 '-ㄱ[아흔]', '-ㄱ[아곤]'이, 崔銀圭(1993)에는 '-ㄱ[아흔]'이, 남경란(2000)에는 '-ㄱ(1회)', '-ㄱ[아흔]'이, 박부자(2000)에는 '-ㄱ[아]'가 제시되어 있다.

‘-ㄱ-’의 弱化形 ‘-ㄱㅏ[아ᄃ]’과 脫落形 ‘-ㄱㅓ[안]’이 확인되기는 하나 基本形 ‘-ㄱㅓ[고ᄃ]’과 ‘-ㄱㅓ[아ᄃ]’의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梵網經』 구결이 남권회본 『楞嚴經』의 구결 부류에 속함을 뜻한다. 실제로 엄인섭(가) 본 『梵網經』은 14세기 초엽의 자료이므로(李丞宰 1990) 남권회본 『楞嚴經』의 구결 기입 시기가 14세기 초엽인 것과(李丞宰 1993:61) 일치한다. 『梵網經』 5種의 이본 중에서 정문연본은 다른 두 이본에 비하여 後代의 구결을 보일 때가 많다(정재영 1996가). 그런데도 ‘-ㄱㅓ[고ᄃ]’과 ‘-ㄱㅓ[아ᄃ]’에 대해서는 정문연본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특이하다.

## 5. 마무리

필자는 오래 전부터 口訣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表記 안에 감춰져 있는 音韻現象을 밝히려 노력해 왔다. 이 글도 ‘-ㄱ-’의 弱化·脫落에 초점을 맞추어 音韻史的 記述을 시도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삼는다.

(1) 『華嚴經疏』, 『華嚴經』, 『舊譯仁王經』 등의 釋讀口訣에 간간이 나타나는 ‘-ㄱㅓㅓ, -ㄱㅓㅓ, -ㄱㅏㅓ’와 ‘-ㄱㅓㅓㅓ, -ㄱㅏㅓㅓ’은 모두 同意 關係에 있다. 이들은 황선엽(2002)에서 논의된 것처럼 문맥에 따라 ‘계기 + 한정’이나 ‘계기 +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

(2) 同意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音相 차이를 形態音素 規則으로 기술할 수 있다. 즉 ‘-ㄱㅓㅓ’와 ‘-ㄱㅏㅓ’를 각각 [ᄃ]과 [ᄃᄃ]으로 表音하고 ‘-ㄱ-’이 ‘-ᄃ-’으로 弱化되는 共時的 規則을 세울 수 있다.

(3) 『瑜伽師地論』에는 마침 ‘-ㄱㅓㅓㅓ[고ᄃᄃ]’과 ‘-ㄱㅓㅓㅓㅓ[아ᄃᄃ]’의 ‘-ㄱ-’이 脫落한 ‘-ㄱㅓㅓㅓ[ᄃᄃ]’과 ‘-ㄱㅓㅓㅓㅓ[안(여)]’이 나온다. 따라서 ‘-ㄱ- > -ᄃ- > -ᄃᄃ-’의 通時的 弱化·脫落 현상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를 각각 基本形, 弱化形, 脫落形으로 부를 수 있다.

(4) 『瑜伽師地論』에서는 基本形만 보이는 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脫落形 ‘-ㄱㅓㅓㅓ[ᄃᄃ]’과 ‘-ㄱㅓㅓㅓㅓ[안]’이 文證되므로 『瑜伽師地論』도 ‘-ㄱ-’의 약화·탈락을 경험한 것으로 본다.

(5) 後代의 誦讀口訣 자료에 나오는 '-ㄱ[고곤], -ㄱ[아곤]'은 각각 釋讀口訣의 '-ㄱ[고곤], -ㄱ[아곤]'에 대응한다. 이들은 意味 기능이나 音相이 서로 같다. 따라서 송독구결에서도 '-ㄱ- > -ㅎ- > -ㅇ-'의 通時的 弱化·脫落을 가정할 수 있다.

(6) 基本形·弱化形·脫落形이 송독구결 자료인 『楞嚴經』의 여러 異本에서 文證된다. 다만 '-ㄱ[고곤]'의 '-ㄱ-'이 弱化된 '-ㄱ[고흔]'은 예가 하나 밖에 없다. '-ㄱ-'이 脫落한 '-ㄱ[곤]'이 『瑜伽師地論』뿐만 아니라 『楞嚴經』의 여러 異本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ㄱ[아곤]'의 '-ㄱ-'이 弱化된 '-ㄱ[아흔]', 그리고 '-ㄱ-'이 脫落한 '-ㄱ[안]'이 文證된다. 따라서 '-ㄱ-'의 약화·탈락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7) 弱化·脫落의 단계는 '-ㄱ- > -ㅎ- > -ㅇ-'이다. 時期가 오래된 문헌에서 基本形 즉 古形이 자주 나타나고 後代로 내려올수록 脫落形이 많아진다. 이 약화·탈락과 관련하여 『楞嚴經』 이본 중에서 ① 남권회본 ② 소곡본과 기림사본 ③ 가람본 ④ 송성문본의 순서로 古形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남권회본이 기본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데 비하여 소곡본은 '-ㄱ-'의 약화형과 탈락형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엄인섭(가)본 『梵網經』은 남권회본과 같은 部類에 들고, 一叢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은 남권회본과 소곡본의 中間에 온다.

(8) '-ㄱ[고곤], -ㄱ[곤]'과 '-ㄱ[아곤], -ㄱ[아흔], -ㄱ[안]' 등은 송성문본 『楞嚴經』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15세기 초엽을 전후하여 자신의 의미 기능을 잃은 채 消滅하였음을 뜻한다. 특히 '-ㄱ[곤]'의 消滅에는 修辭 疑問文의 연결어미 '-ㄱ[곤]'이 登場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9) 가람본에는 脫落形 '-ㄱ[곤]'과 '-ㄱ[안]'에 '-ㄱ[으]'이 重加된 '-ㄱ[고논]'과 '-ㄱ[아논]'의 예가 자주 나온다. 이 重加 현상은 기존의 의미를 유지하려는 작용과 同音衝突을 피하려는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梵網經』의 5種 異本이 基本形을 많이 유지한 것은 남권회본 『楞嚴經』과 유사하다. '-ㄱ-'의 약화·탈락에 관한 한 異本 相互間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구결토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여러 口訣 자료의 相對的 順序를 정하는 일은 口訣 연구와 國語史 記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구결 자료는 口訣의 記入 時期가 분명하지 않아 자료를 이용할 때 항상 불안하였다.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言語 現象을 중심으로 하여 구결 자료의 相對的 順序만이라도 점검해 두어야 한다. 이 글은 ‘-ㄱ-’의 약화·탈락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자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참 고 문 헌

- 金斗燦(1987), 『『直指心體要節』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 國語學會, 125-149면.
- 金斗燦(1989),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8, 國語學會, 64-88면.
- 金斗燦(2000), 『『華嚴經 十四』 口訣 機能體系』, 『口訣研究』 6, 口訣學會, 343-449면.
- 金完鎭(1975),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國語學會, 7-16면.
- 김주원(1984), 『통시적 변화의 한 양상』, 『언어학』 7, 한국언어학회, 47-66면.
- 남경란(2000), 『남권희 (나)본 『능엄경』의 입결 연구』, 『口訣研究』 6, 口訣學會, 87-133면.
- 南權熙(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47-194면.
-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古印刷博物館.
- 南豊鉉(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研究』, 『震檀學報』 69, 震檀學會, 75-101면.
- 南豊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9-20면.

- 南豐鉉(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國語學會. 9-20면.
- 南豐鉉(2000),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研究』 6, 口訣學會. 11-40면.
- 박부자(2000),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6, 口訣學會. 135-172면.
- 朴盛鍾(1996), 「解題」(宋成文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三』,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21면.
-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口訣研究』 1, 口訣學會. 73-93면.
- 朴喜淑(1978),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論文集』(관동대) 7.
- 李基文(1972/77), 『國語音韻史 研究』(國語學叢書 3), 國語學會.
- 李丞宰(1990),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애산학회. 117-147면.
- 李丞宰(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的 研究』(安秉禧 先生 回甲紀念論叢), 文學과 知性社. 56-76면.
- 李丞宰(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의 研究」, 『震檀學報』 78, 震檀學會. 307-326면.
- 李丞宰(1995),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35-348면.
- 李丞宰(1996), 「'-ㄱ' 弱化·脫落의 通時的 考察 —南權熙本 『楞嚴經』의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國語學』 28, 國語學會. 49-79면.
- 李丞宰(1997), 「吏讀와 口訣」, 『새국어생활』 7-2, 국립국어연구원. 135-144면.
- 李丞宰·沈在箕(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29-111면.
- 정재영(1996가),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口訣研究』 1, 口訣學會. 127-234면.
- 정재영(1996나), 「解題」(祇林寺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15면.
- 鄭鎬半(1997), 「宋成文本 『楞嚴經』 口訣의 助詞 研究」, 關東大 碩士學位論文.

- 崔銀圭(199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文學과 知性社. 660-689면.
- 한상화(1994), 「祇林寺本 『楞嚴經』 口訣의 研究」, 聖心女大 碩士學位論文.
- 황선엽(1996), 「一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口訣研究』 1, 口訣學會. 95-126면.
- 황선엽(2002), 「구결자 '斤'의 해독에 대하여」, 『제26회 共同研究會 發表 論文集』, 口訣學會. 91-105면.

〈Abstract〉

## A Visit to [g] Reduction and Deletion in Gugyeol(口訣) Data

Lee, Seung-ja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diachronic process of [g](ㄱ) reduction and dele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Gugyeol(口訣) data from the 12th century to the 14th. The conjunctive [-gogʌn](-ㄱㅏㄱ) and [-agʌn](-ㅓㅏㄱ) of Interpretive Gugyeol(釋讀口訣) was altered with the [-gofʌn](-ㄱㅓㄱ) and [-afʌn](-ㅓㅓㄱ) respectively. It argues that the intervocalic [g] of the former reduced to the [f] of the latter.

The conjunctive corresponds to [-gogʌn](-ㄱㅏㅍ) and [-agʌn](-ㅓㅏㅍ) of Reading Gugyeol(誦讀口訣). By the way, [-gogʌn](-ㄱㅏㅍ) was reduced to [-gofʌn](-ㄱㅓㅍ), of which the intervocalic [f] was deleted to [-gon](-ㄱㅓ) at the end of 14th century. The diachronic process of 'g > f > ∅' is parallel to the reduction and deletion of '[-agʌn](-ㅓㅏㅍ) > [-afʌn](-ㅓㅓㅍ) > [-an](-ㅓㅓ)'. Conclusively, it is convinced that Gugyeol data support for the [g] reduction to [f] and the deletion of [f] in middle Korean Phonology.

Key Words : Interpretive Gugyeol, Reading Gugyeol, phoneme, diachronic process, morph, reduction, delition